

## 유럽의 만연한 노인 학대, 끝낼 수 있습니다

Borja Arrue-Astrain

에이지 플랫폼 유럽(AGE Platform Europe)

[borja.arrue@age-platform.eu](mailto:borja.arrue@age-platform.eu)

---

코로나 19 팬데믹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데 있어 유럽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코로나 19로 인한 유럽 요양원의 엄청난 사망자 수는 유럽대륙의 고질적인 연령주의적 정책과 태도, 노인의 보살핌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대부분 드러나지 않지만 만연하게 벌어지는 노인 학대라는 현상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왜 유럽에서는 노인학대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는가? 무엇이 위험요소인가?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노인 학대, 연령주의의 가장 해로운 형태

노인 학대는 “노인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일회성 행동, 반복적 행동, 또는 적절한 행동의 부재를 말하며, 신뢰가 기대되는 관계에서 일어난다.”<sup>1</sup> 노인 학대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재정적인 측면과 함께 방임도 포함한다. 많은 사례가 돌봄의 상황에서 일어나며 개인적 공간에서 발생하지만, 실제 노인 학대는 요양원이나 지역사회 등의 모든 공간에서 발생한다.

노인 학대는 피해자와 생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감퇴를 경험하고 자주 거부와 배제당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가장 심각한 사례로서, 학대와 부적절한 대우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에 따르면, 유럽에서 일 년 동안 일어난 8만 5천 건의 노인 살인사건 중 3분의 1(2,500 건)이 노인 학대로 인한 것이었다.<sup>2</sup> 노인 학대는 사망 증가율과 연관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도 있다.<sup>3</sup>

노인 학대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유럽에 퍼진 연령주의가 노인 학대의 근본요인 중 하나이다. 연령주의는 “연령을 기반으로 한 타인이나 자신을 향하는 고정관념(어떻게 생각하는가), 편견(어떻게 느끼는가) 및 차별(어떻게 행동하는가)을 말한다.”<sup>4</sup> 연령주의는 집단적인 상상력으로 노인을 사회의 “짐”으로 묘사하며, 필연적으로 쇠약하고 배려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그린다. 이는 노인의 자기 존엄성을 약화시킨다. 특히 장기요양이 필요해짐에 따라 사람들이 노인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유럽에서 연령주의는 가장 만연한 형태의 차별이라고 알려져 있다. 42%의 유럽인들은 자국에서 5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이 “아주” 또는 “상당히” 넓게 퍼져 있다고 느낀다.<sup>5</sup> 노인 학대는 이렇게 만연한 연령주의적 태도의 ‘정상화’ 때문에 발생한다; 연령주의는 노인 학대를 정당화하거나, 다른 형태의 학대나 폭력보다 덜 심각하거나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것은 소위 “내재화된 연령주의”를 생성하는 단계까지 작용한다. 내재화된 연령주의란 노인이 잠재적으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연령주의적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대와 부적절한 대우는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연령주의의 범위안에서 가장 해가 되는 형태의 표현이다; 학대를 당할 위험은 연령주의가 장애인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동성애 혐오증, 인종차별주의 등 다른 차별 요인과 교차할 때 증가한다.

## 드물지만 우려되는 노인 학대 만연에 관한 유럽 데이터

노인 학대를 정당화하고 간과하게 만드는 연령주의 때문에 유럽에서 노인 학대는 숨겨진 현실로 남아있다. 다른 형태의 폭력과 비교하여 노인이 당하는 폭력, 학대 및 방임의 형태와 그 발생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2011년 WHO의 노인 학대에 관한 유럽 보고서와 유럽연합(EU)이 지원한 연구 프로젝트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종합적인 국가 간 비교 연구는 부족하며, 국내 데이터 또한 항상 손쉽게 접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용 가능한 증거가 보여주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앞서 언급한 유럽지역에 관한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노인의 약 3%가 지역사회 내에서 학대를 당하며, 이것은 고도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25%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6</sup> 7개 유럽국가의 상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신적 학대(19.4%), 신체적 학대(2.7%), 성적 학대(0.7%), 재정적 학대(3.8%), 부상(0.7%) 등이 발생했다.<sup>7</sup> 세계적으로 6명의 노인 중 1명이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한다고 추정되는 만큼 유럽도 사실상 예외가 아니다.<sup>8</sup> 또한 세계적으로 노인 학대 24개 사례 중 약 1건만 보고된다고 추정되는 만큼<sup>9</sup>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 코로나 19: 증가추세에 있는 요양원에서의 참사와 노인 학대

2021년 유럽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와 그 발생 정도를 언급할 때 코로나 19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요양원 거주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WHO는 1차 대유행 기간 유럽에서 코로나 19로 사망한 사례의 95%가 60세 이상이었으며, 50% 이상이 80세 이상이었다고 보고했다.<sup>10</sup>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의 약 50%가 요양원에서 일어났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결과는 수년에 걸친 유럽의 시설/기관 내 돌봄의 위태로움을 보여준다. 일부 연구는 어려운 노동 조건, 인력 부족, 요양원에서 지켜야 하는 인권의 원칙과 의무에 대한 무지가 그러한 환경에서의 노인 존엄을 저해했다고 밝히고 있다.<sup>11</sup> 코로나 19는 이미 존재하던 다양한 부분에서의 결핍과 취약성을 악화시켰다. 부적절한 준비와 인력 부족으로 노인을 요양원에 유기한 경우와 노인의 입원을 거절하는 병원,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프로토콜 등이 유럽 전역에 퍼져있다는 것은 자주 보고된 바 있다.<sup>12</sup> 이러한 현상은 정책과 서비스에서 구조적인 형태로 지속되는 연령주의를 보여준다. 이는 돌봄 부문의 위태로움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학대와 모멸적 대우로 이어진다.<sup>13</sup>

요양원이 노인에 대한 방임과 학대가 관찰되는 유일한 환경은 아니다. 노인 학대의 위험요인은 코로나 19 기간 악화되었다.<sup>14</sup> 이러한 위험요인은 전문적인 지원의 부족과 비공식적인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포함한다. 유럽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대부분을 친척, 친구, 이웃이 담당하는데, 이들은 종종 과한 부담을 감당하고 있으며, 정식 훈련을 받지 않은 비공식적인 돌봄제공자이다. 영국의 데이터에 의하면 알려진 학대 건수가 37% 증가하였는데,<sup>15</sup> 이러한 증가가 유럽 전역에도 사실일 것임을 시사하는 증거가 많다.

### **노인 학대를 끝내기 위한 행동**

유럽 사회는 노인 학대를 사회적, 인간적 배경의 일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이는 피할 수 없는 불운인가, 아니면 적절한 정책과 대안적인 사회 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현상인가?

시민사회와 학계는 학대 위험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처 방안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노인 학대 발생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근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 1)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연령주의의 근절

이 보고서에서 밝혔듯 연령주의는 유럽에서 만연한 형태로 나타나는 편견, 고정관념 및 차별이며 노인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연령주의를 노인 학대의 근본 이유로 이해하는 몇몇 기관과 개인들은 증언, 증거 및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연령주의의 근절을 위해 싸우고 있다. '평등한 나이 둠'(Ageing Equal)이 그 예인데,<sup>16</sup> 이는 유럽시민사회가 주도한 연령주의 타파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이다.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는 대중의 연령주의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개인, 사회, 정치 시스템이 연령주의를 근절하기 위해 어떻게 공헌할 수 있고, 공헌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법을 제시한다.

유럽에서 연령주의의 근절을 위해 채택한 행동은 다음과 같다: 공공 서비스 제공자와 민간 서비스 제공자는 평등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보건과 장기요양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연령주의적 태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가를 양성한다; 다른 차별과의 교차적 접근을 통해 연령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sup>17</sup>

유엔, WHO와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OHCHR)이 2021년 출간한 최초의 연령주의에 관한 국제 보고서는 연령주의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 이 연령주의 국제 보고서는 유엔의 '활기찬 나이 둘 십 년(2021-2030)'<sup>18</sup>에 포함된

연령주의 근절을 위한 행동 영역(Action Area on Combatting Ageism)과 더불어, 연령주의와 투쟁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연령주의의 결과로서 노인 학대를 근절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동일 선상에서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는 유럽연합(EU)이 '연령 평등 전략'(Age Equality Strategy)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전략은 유럽연합(EU) 및 각 회원국의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 연령주의를 주류화하여, 유럽 전역에서의 연령주의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 2) 학대의 고리를 끊기 위한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 지원

노인들은 많은 경우 학대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유럽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 법 집행과 사법제도 등은 노인 학대를 식별하고, 그 생존자,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데 준비가 부족하다고 자주 보고된다. 일부 연구는 법집행기구가 노인을 향한 학대와 폭력을 다른 연령대를 향한 범죄보다 덜 심각하게 여기는 경향을 지적함과 더불어 친밀한 사이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에 시달리는 노인 여성에 관한 문제를 환기시킨다.<sup>20</sup> 공권력의 미온적인 수사와 미흡한 대응은 피해자의 죄의식과 무력감을 악화시키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수 있는 학대 상황을 피해자가 인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역학은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을 영속시킨다.<sup>21</sup>

유럽 정부는 노인 학대를 항상 범죄로 취급하진 않는다. 이는 피해자가 이용 가능한 지원 체계의 혜택을 상당 부분 받지 못하게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 유럽연합(EU)의

피해자 권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유럽 공동 최소 보장'이 마련되었다.<sup>22</sup> 법이 어떻게 노인 학대를 다루고 있는지, 노인 학대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만 범죄로 취급하는 것의 장단점 등에 대한 분석은 현 유럽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 할 수 있다.<sup>23</sup>

법률적 공백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유럽 정부와 비정부 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노인 학대를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화 상담 서비스가 포함된다.<sup>24</sup> 해당 서비스는 피해자 및 목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와 그들의 법적 권리 등에 대해 조언을 해 주는 등 귀중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 담당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문을 주선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간 중재 역할을 맡기도 한다.

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 중의 하나는 여러 기관 간의 협력이다. 이 협력을 통해 지원 서비스 단체, 노인 단체, 법 집행 기관과 다른 이해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노인 학대를 식별/해결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 대응책을 채택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러한 다기관 협력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개발하려는 많은 프로젝트에 재정적 지원을 해 왔다.<sup>25</sup> 또한 유럽연합(EU) 회원국 차원에서 유사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어 왔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는 대중 캠페인과 인식 제고 등이 협력에 기반한 대응책에 포함된다.<sup>26</sup>

학대가 가정환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아닌)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와 중재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sup>27</sup> 학대 가해자는 많은 경우 친척이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돌봄에 대한 훈련과 지원을 받지 못한 비공식 돌봄제공자이며,

많은 경우 학대 행위는 진정으로 의도하지 않을 것일 수 있다. 노인과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사적 관계에서는 사법 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중재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회복적 정의와 중재에 의한 해결책은 유럽에서 시험적으로 적용돼 왔지만, 노인 학대 문제에서는 그 한계와 최소 규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더 많은 증거와 지침이 필요하다.<sup>28</sup>

### 3) 노인 돌봄과 지원 수준의 제고

비공식적인 돌봄제공자가 종종 학대 가해자가 되는 부분적인 이유는 유럽에서는 양질의 전문적 장기요양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는 유럽의 노인 중 30%가 장기요양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정하였으며,<sup>29</sup> 다른 추정치들은 대부분의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이보다 더 큰 공백이 있음을 보여준다.<sup>30</sup>

서비스에 대한 투자 부족과 비공식적 돌봄제공자와 돌봄전문가의 과중한 부담이 돌봄의 질을 낮추고 방임과 학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자명하다.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벌어진 코로나 19 사태는 몇 년에 걸친 투자 부족과 연결될 수 있는데, 이는 2009년 이후의 경제와 금융 위기로 악화되었다. 예를 들어, 유럽평의회 인권위원회 대표(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f the Council of Europe)는 2012년 포르투갈 방문에서 긴축재정이 어떻게 노인이 학대와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을 증가시키는지 설명하였으며,<sup>31</sup> 비슷한 상황이 몇 년에 걸쳐 유럽연합(EU) 전역에서 보고되었다.

코로나 19의 비극과 관련하여 유럽평의회 인권위원회 대표(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f the Council of Europe)는 몇몇 유럽 국가에서 노인 기능 장애를 지적하며, 이 기능 장애는 유럽의 장기요양 부문에서의 긴 시간에 걸친 미비한 투자(적자)의 결과라고 언급했다.<sup>32</sup> 동 대표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비극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럽 국가가 모두 실패 없는 사회 보장 개혁에 착수하고, 인간의 필요와 존엄을 중심에 둔 장기요양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말을 맺었다.

사실상 코로나 19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계획, 설계 및 제공할 때, 유럽 사회가 어느 수준의 목표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러한 논의는 미래 장기요양 서비스 시스템 발전과 유럽국가의 노인 학대 대응 능력 배양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2017년 유럽연합(EU)은 이른바 유럽의 사회적 권리의 원칙(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을 만든 정책 선언의 일환으로 권리로서의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특히 자택이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돌봄을 받을 권리”를 공인하였다. 돌봄은 각 회원국이 권한을 가지는 영역이지만, 유럽연합(EU)은 향후 실천으로 옮겨야 할 정치적 책무로서 이를 수용하였다. 하지만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에서 취해진 이러한 계획은 유럽연합(EU)이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돌봄과 지원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을 공고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에게는 장애인보다 낮은 수준의 목표가 적당하다고 여기며, 이러한 접근은 특히 탈시설화와 지역사회생활과 같은 이슈에서 드러난다.<sup>33</sup>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조직과 실행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유럽의 노인 단체는 새로운 장기요양 서비스 모델을 요구하며, 이것을 가능하게 할 중요한 개선점과 원칙을 찾아냈다.<sup>34</sup> 이것들은 시설에서의 돌봄 서비스가 개선되거나,

지역사회 돌봄 및 자택 돌봄으로 과감히 선회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몇몇 학자들도 같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제안하였는바 요양원에서의 돌봄은 종료하고, 노인 돌봄 문제의 해결 및 노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였다.<sup>35</sup>

이러한 목소리가 지속된다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조직하는 방법과 이에 필요한 가치와 원칙에 관한 유럽의 논의는 풍부해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스템과 자원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제안한다. 이것은 돌봄을 폭넓은 집단 정체성의 일부로, 사회적 통합을 위한 긍정적인 자원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함이다.<sup>36</sup>

## **결론**

유럽에서의 노인 학대는 만연하지만 크게 간과되어 왔다. 이는 널리 퍼진 연령주의적 태도,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정책적 관심과 불안정한 돌봄 시스템의 결과이다. 이러한 원인의 제거는 유럽 사회가 노인 학대를 근절시키고 노년기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코로나 19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노인 학대를 과거의 것으로 만드는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

<sup>1</sup>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June 15). *Elder abuse*.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elder-abuse>

<sup>2</sup>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1). *European report on preventing elder maltreatment*.

<sup>3</sup> Lachs, M. S. et al. (1998). “The Mortality of Elder Maltreatment”, in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 <sup>4</sup>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Global report on ageism*.
- <sup>5</sup>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2018). *Shifting perceptions: towards a rights-based approach to ageing*.
- <sup>6</sup>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1). *European report on preventing elder maltreatment*.
- <sup>7</sup> ABUEL EU project. (2010). *Abuse and health among elderly in Europe*
- <sup>8</sup>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June 15). *Elder abuse*.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elder-abuse>
- <sup>9</sup> Idem.
- <sup>10</sup>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21, April 2). *Statement – Older people are at highest risk from COVID-19, but all must act to prevent community spread*. Retrieved from <https://www.euro.who.int/en/health-topics/health-emergencies/coronavirus-covid-19/statements/statement-older-people-are-at-highest-risk-from-covid-19,-but-all-must-act-to-prevent-community-spread>
- <sup>11</sup> European Network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ENNHRI). (2017). *“We have the same rights”.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in Long-Term Care in Europe*.
- <sup>12</sup> Médecins sans frontières. (2020, August 20). *MSF calls for urgent measures in care homes to prevent more deaths from COVID-19*. Retrieved from <https://www.msf.org/covid-19-urgent-measures-needed-spains-care-homes>
- <sup>13</sup> Arrue-Astrain, B. and Huchet, E. (2020, 16 June). *“The fate of Europe’s elderly under Covid-19 lockdown” in EUobserver*. Retrieved from <https://euobserver.com/opinion/148637>
- <sup>14</sup> McMahon, M. (2021, March 15). *COVID-19 sparks rise in elder abuse across Europe*, in Euronews. Retrieved from <https://www.euronews.com/2021/03/15/covid-19-pandemic-sparks-rise-in-elder-abuse-across-europe>
- <sup>15</sup> Hymas, Ch. (2020, May 17). *Silent scandal of elderly abused during lockdown*, in *The Telegraph*. Retrieved from <https://www.telegraph.co.uk/news/2020/05/17/silent-scandal-elderly-abused-lockdown/>
- <sup>16</sup> Ageing Equal campaign. [www.ageing-equal.org](http://www.ageing-equal.org)
- <sup>17</sup> AGE Platform Europe and Equinet. (2019). *How do we tackle ageism and age discrimination of older people? Report of the capacity-building seminar organized by AGE Platform Europe and Equinet*.
- <sup>18</sup> UN Decade of Healthy Ageing. <https://www.who.int/initiatives/decade-of-healthy-ageing>
- <sup>19</sup> AGE Platform Europe. (2021). *Towards an EU Age Equality Strategy. Delivering equal rights at all ages*.
- <sup>20</sup> Roberts, Y. (2021, March 7). *End femicide: 278 dead – the hidden scandal of older women killed by men*, in *The Guardian*.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1/mar/07/end-femicide-278-dead-the-hidden-scandal-of-older-women-killed-by-men>
- <sup>21</sup> AGE Platform Europe. (2017). *Report of the workshop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elder abuse on the occasion of the 12<sup>th</sup> 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
- <sup>22</sup> EU Victims’ Rights Directive: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2L0029>
- <sup>23</sup> Idem.
- <sup>24</sup> Examples include: Telefono Anziani Maltrattati or Filo d’argento, in Italy; Respect Seniors in Belgium; Life Line in Greece; the phone assistance offered by Fórum pre pomoc starším in Slovakia; or Fédération 3977 in France.
- <sup>25</sup> See for instance the MARVOW EU-funded project: <https://marvow.eu/>
- <sup>26</sup>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Action against elder abuse*. Retrieved from <https://www.government.nl/topics/abuse-of-the-elderly/action-against-elder-abuse>
- <sup>27</sup> AGE Platform Europe. (2017). *Report of the workshop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elder abuse on the occasion of the 12<sup>th</sup> 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
- <sup>28</sup> AGE Platform Europe. (2017). *Victims’ rights: let’s not forget the victims of elder abuse!*.
- <sup>29</sup> Scheil-Adlung, X. (2015). *“Long-term care protection for older persons: A review of overage deficits in 46 countries”*, *Extension of Social Security, Working Paper No. 50*,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sup>30</sup> Rodrigues, R. (2019). *Measuring Long-term Care: Access, Quality and Sustainability*, Thematic Discussion Paper, European Commission
- <sup>31</sup> Muiznieks, N. (2012). *Report by Nils Muiznieks,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f the Council of Europe, following his visit to Portugal from 7 to 9 May 2012*, Council of Europe

- 
- <sup>32</sup> Mijatovic, D. (2020, May 20). *Lessons to be drawn from the ravages of the COVID-19 pandemic in long-term care facilities*. Retrieved from <https://www.coe.int/en/web/commissioner/-/lessons-to-be-drawn-from-the-ravages-of-the-covid-19-pandemic-in-long-term-care-facilities>
- <sup>33</sup> AGE Platform Europe. (2020). *Public consultation: Feedback Disability Rights Strategy 2021-2030. Contribution from AGE Platform Europe*.
- <sup>34</sup> Organisations of older people have pointed to the shortcomings of current policies and in the approaches adopted in care reforms. PVÖ in Austria, Vlaamse Ouderenraad in Belgium, VdK in Germany or ZDUS in Slovenia have pointed to the inadequate funding of care and the need for additional resources; UDP in Spain has cooperated with an association of relatives of older people in care homes to denounce the systematic breaches of dignity of care home residents.
- <sup>35</sup> Campbell, A. and Quinn, G. (2020, May 20). *Nursing homes must be made a thing of the past*, in *The Independent*. Retrieved from: <https://www.irishtimes.com/opinion/nursing-homes-must-be-made-a-thing-of-the-past-1.4257422>
- <sup>36</sup> Crowther, N. (2020, June 8). *Together we can*. Retrieved from <https://www.scie.org.uk/care-providers/coronavirus-covid-19/beyond/blogs/together-we-can>